

국민주권정부의 법무·검찰, 국민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 정성호 장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민주영령 앞에 서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월 15일(금) 5·18민주묘지를 방문하여 참배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 상급 관리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5·18 민주묘지 참배는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하였는지 깊이 성찰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쓰러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였고, 이후 이번 참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하였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이자 법치의 토대인 오월 정신이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별첨 : 5·18 민주묘지 참배 참석자 명단]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최태은	(02-2110-3360)
		담당자	담당관	한정진	(02-2110-3038)



[별첨] 5·18 민주묘지 참석자 명단

소속	직위	성명
법무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검찰국장	이용철
	인권국장	승재현
	국제법무국장	강준하
	교정본부장	이홍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장관정책보좌관	조상호
	장관정책보좌관	서준섭
	대변인	최태은
	정책기획단장	서경원
	법무과장	이윤구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광주교도소장	박경선
	광주보호관찰소장	이정민
	광주소년원장	이승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임은진
검찰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
	광주고검장	고경순
	대전고검장	김태훈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박규형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최지석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
	서울남부지검장	성상현
	광주지검장	김종우